

‘독이 든 성배’ 국대감독 구인난을 어찌할꼬!

선동열 후임...감독들 수락하기엔 부담 대표팀의 성격과 새 기준 마련 등 필요 프리미어12·도쿄올림픽 등 과제 산적



1년 6개월 만에 부활한 KBO 기술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시진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김 위원장과 새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선동열 감독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야구대표팀 사령탑 선임에 비롯해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러났듯 야구대표팀 사령탑 자리는 어느새 축구처럼 ‘독이 든 성배’가 됐다. 야구계는 물론 팬들의 기대까지 충족시켜줄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변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승 금메달 신화를 이룬 김경문(61) 전 감독, 2009년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과 2010년 광주아시아게임 금메달을 이끈 조범현(59) 전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그들이 선택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이들에 필적할 만한 참신한 후보군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인물난 속에 새 기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표팀 사령탑 선임이라는 당면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중장기 과제도 새 기술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향후 아시아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나설 대표팀의 성격과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는 기술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다. KBO 수뇌부는 물론 야구계 전체의 ‘콘센스(consensus)’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술위원회가 얼마든지

기초작업은 진행할 수 있다. 선 전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고, 정운찬 KBO 총재가 혹독한 책임론에 휩싸인 지난해 ‘병역특례 무임승차’ 파동의 근원은 자카르타-팔렐방아시아게임 대표팀 구성을 놓고 빛어진 야구계의 그릇된 관행과 욕심이었다. 대개 아마추어선수들로 아시아게임 대표팀을 구성하는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은 프로 정예들을 내보내면서 리그까지 중단시켰다. 금메달이 유력한 터라 야구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일부 선수들과 야구인들은 공과 사의 구분을 망각했다. 아시아국가로는 유일무이하게 올림픽 금메달까지 획득한 한국야구가 달라진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표팀을 운영하다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이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모쪼록 김 신임 위원장과 KBO, 더 나아가 한국야구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모진 시련에 움츠러들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진일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얻었으면 한다. 전문기자 jace@donga.com

‘사과’로 시작된 KBO 신년사 정운찬 총재, 혁신을 외치다



정운찬 총재

KBO 정운찬 총재가 전한 2019년 새해 인사의 시작은 ‘사과’였다. 정 총재는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와 말씀부터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국가대표팀 전임감독제를 두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총재로서 내뱉은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된 일이다.

정 총재는 “야구팬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아시아게임 3연패, KBO리그 3년 연속 800만 관중 돌파 등의 외형적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났고, 나와 국가대표 감독이 국회 국감장에 서는 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 깊은 사과를 드린다. KBO 커미셔너로서 해야 할 일과 사회적인 책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덧붙혔다.

이어진 것은 ‘약속’이었다. 정 총재는 “2019년은 혁신의 해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클린 베이스볼 확립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FA와 트레이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리미어 12’에 대해서는 “국민의 성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대표팀을 구성하겠다”며 “한국야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전임감독제를 유지하며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83년생 돼지띠 스타들, 기해년 반등의 꿈

최형우·권혁 등 명예회복 도전장 부상회복 KT 이대형은 부활 다짐

‘부진했던 돼지띠 주축들이여, 황금돼지가 되어줘!’

2019년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다. 현재 KBO리그 현역선수들 중 돼지띠는 1983년생, 1995년생이다. 이들 중 만 36세를 맞은 1983년생들은 ‘베테랑’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리그 전반적으로 베테랑 소의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력으로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부진했던 이들이 황금돼지로 거듭난다면 구단으로선 풍요로운 한해를 보낼 수 있을 만큼 핵심전력이 즐비하다. 반등이 필요한 1983년생 돼지띠 5인을 살펴봤다.

KIA 타이거즈 최형우는 해결사 본능을 깨워야 한다. 2017년 프리에이전트(FA)로 KIA로 향했고, 우승을 이끌며 ‘이 맛에 현질한다’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4번타자 자리까지 잃으며 고전했다. 후반기 극적인 상승세로 팀의 5강 진입에 앞장섰다. 그 후반기의 모습을 올해는 시즌 내내 보여줘야 한다.

디펜딩 챔피언이 된 SK 와이번스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 ‘악마 투심’ 박희수다. 팀이 8년만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박희수는 포스트시즌 명단에 없었다. 대체선수대비승률기여(WAR) 0.84로 불펜 3위에 오르는 등 그간의 부진을 갚았기에 더욱 아쉽다. 김태훈과 함께 2019시즌 SK의 왼쪽 허리를 도맡아야 한다.

한화 이글스 권혁도 2019시즌을 절치부심으로 준비 중이다. 앞선 3년간 혹사의 후유증은 ‘불꽃남자’ 권혁의 어깨와 팔꿈치를 괴롭혔다. 9월초 감독의 복귀로 팬들의 눈시울을 붉혔고, 어느 정도 제 역할을 다했다. 시속 150km를 웃돌던 구속은 사라졌지만 관록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는 젊은 한화에 반드시 필요한 무형의 가치다. 지난해 8경기 등판은 2006년 데뷔한 LG



KIA 최형우

한화 권혁

KT 이대형

트윈스 장원삼의 개인 최저기록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결국 삼삼 라이온즈에서 방출됐다. 그를 품은 이는 ‘은사’ 류종일 감독이다. 류 감독과의 재회도 동기부여는 확실하다. LG에 술한 영건들의 성장까지 시간을 벌여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슈퍼소닉’ 이대형의 질주는 2017시즌

중반부터 멈췄다. 2017시즌 도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고, 결국 지난 시즌 마지막 홈런기에야 복귀했다. 리드오프를 도맡던 그지만, 팀 내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KT 위즈의 외야는 정쟁터다. 이대형의 빠른 발은 여전히 활용 가치가 높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르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 나이가 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라든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본인만 누구나 다 늙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십니까?
우선 나이가 어러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방산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서남해안항활영동조항과 주에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항활영크림은 항활영추출물 주름을 없애주는 주름개선, 피부비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형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뜰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나게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짙고 흐르는 탱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와지면 펜시외출하고 싶어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구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세트: 정보고 항활영크림 2개 + 항활영미온버 1개
- *판매관: 서남해안항활영동조항
- *용량: 70g/개
- *제조원: 주에이스제약

남겨공용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우면 자나는 사람들이 한뎀더 쳐다본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항활영크림 1600-2865

그것 참 신통하다!
붙이고 확인하세요!
12步 불편한 곳에 붙이세요!
시원함에 한번 놀라고 만족감에 또 한번 놀란다!
신통탕통-강력한 생체에너지 파워칩 부착 패치

아하!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게예요구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운동전후 남녀노소 구분없이 사용가능
간편하고 쉽습니다!

(주)솔인한방제약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구입문의: 1670-54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따따의 놀라운 성능

휴대용

제품명: 허리따따
제조/판매원: 솔인
재원: 길이: 대, 중, 소
두께: 5mm/ 무게: 210g
제품용도: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성: 가볍고 반영구적
스마트 기능
제조국: Made in Korea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생하는 허리따따 발열패치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쿼리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 1600-1043